

## ‘포천신문 발전 위한 代案 모색’

### 創刊 17주년 기념식 5개 위원회 對話의 場

본지 창간 17주년 기념식이 12월 15일 오후5시30분 송우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2백여명의 포천신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만찬 및 상호인사누기, 제3부 축하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포천신문 창간17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 열단식(좌로부터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 조성선 조사위원장, 양주승 자문위원장, 최호열 발행인, 윤이용 운영위원장,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

이날 기념식에서 최호열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보내주시는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의 시간과 더불어 더 큰 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히고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학생명예기자단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힘들어하던 포천신문을 인수하여 그동안 꾸준히 성장시켜온 최호열 발행인 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밝혔다. “언론은 거울처럼 항상 선명한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며 포천신문이 포천의 발전상을 선명하게 담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적인 에너지의 결속력과 겸손함과 초심으로 각 위원회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언론 본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은 “포천신문의 큰 힘을 보았다”며 “더 큰 활동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문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선 조사위원장은 “포천신문사의 발전이 포천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 위원회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화용 자문위원의 ‘포천신문 열매를 맺으리라’는 제목의 축시 낭송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의 ‘아름다운 세상’ 합창이 이어

## ‘한국축구 모델 만든다’

### 12월21일 김희태 축구센터 준공식

김희태 축구센터(FC KHT·사진)가 지난 5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착공한지 8개월 만인 12월21일 준공식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축구인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축구센터가 문을 연다는 점에서 김희태 축구센터가 갖는 의미는 크다. 김희태 축구센터 김희태 감독을 만나 준공식 이후 운영방향 및 김희태 축구센터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후에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유럽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일동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체전 경기도예선전에 참가해 최종 3차전에서 수원고등학교에게 아깝게 2:1로 저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들 학생이 이제 김희태 축구센터에서 처음 발굴한 선수들이다.

▶포천에 김희태축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 및 배경은? 일동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 친구와 동료들의 권유에 따라서 고향에 축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2한일월드컵 경기후인 2002년7월에 창단했다. ▶김희태 축구센터설립의 목적은? 한국축구의 단점은 역시 기초 부족이다. 어린아이들부터 기초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23년동안 대학과 프로팀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소년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했다. ▶김희태 축구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공부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다.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동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은 전교 1등이다. 그리고 축구도 한다. 김희태 축구센터는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한다. 공부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김희태 축구센터가 한국축구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김희태 축구센터는 한국축구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중3때까지는 축구에 필요한 전문체력운동을 실시한다. 패스를 하고 빈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기술을 습득한

김희태 축구센터는 3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제1단계로 축구센터 건립이다. 축구장 3면 건립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1년이 앞당겨졌다. 제2단계는 축구클리닉연구소 설립이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한국축구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길 계획이다. 3단계는 세계적인 선수발굴이다. 한국에서 최고의 축구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에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한편, 김희태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태 감독은 1983년 11월 아주대학교 축구부 코치, 1987년 대우로얄즈 프로축구단 코치, 1990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코치, 1991년1월 아주대학교 축구부 감독, 1994년9월 대우로얄즈 프로축구단 감독, 1995년부터 2002년12월까지 명지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활동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초대 챔피언 황광익 경기위원장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한희준) 초대챔피언 초청만찬이 12월12일 오후5시30분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희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보다 좋은 말은 만족”이라며 “회원여러분 모두가 만족하게 새해에는 더욱 큰 진전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고문은 “오늘도 역시 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포천신문 골프회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게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초대 챔피언 황광익 경기위원장은 우승 1회, 준우승 1회, 메달리스트 2회, 장타상 1회 로 76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준우승은 최호열 고문이 75점을 얻어 차지했고 3위는 강경만 회원, 다비디상은 이찬우 회원, 다파상은 박노현 부회장, 베스트 매너상 최

정기 회원, 베스트 드레서상은 이희자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포천신문골프회는 2007년 1월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해남도 연수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챔피언 초청만찬에서 한희준 포천신문 골프회 회장(왼쪽)이 초대 챔피언 황광익 경기 위원장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축하했다.

### 포천신문 임팩트 마케팅

이희용  
포천신문 회장

포천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포천신문 임팩트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는 포천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포천신문은 창간 17주년을 기념하여 '포천신문 임팩트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는 포천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포천신문은 창간 17주년을 기념하여 '포천신문 임팩트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는 포천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